

변연하 경기당 4.82개 AS “어시스트상, 탐나긴 하다”

“공격력 좋은 후배 돕다보니 어시스트 많아져”



KB스타즈 베테랑 변연하(35·사진)는 'KDB생명 2015~2016 여자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포인트가드로 변신해 눈에 띄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28일 청주체육관에서 벌어진 KB하나은행과의 홈경기에서 29분만 뛰고도 11점·8어시스트·5리바운드로 팀의 79-64 대승을 이끌었다. 올 시즌 경기당 4.82개의 어시스트로 이 부문 1위를 질주하는 등 코트 위의 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변연하는 “팀에 강아정, 홍아란 등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후배들을 살려주는 데 좀더 집중하고 있다. 그 덕분에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기인 외곽포는 꾸준히 가동하고 있다. 21개의 3점슛을 팀에 꽂아 이 부문 9위에 올라있다. 3점슛 성공률(33.3%)에서도 3위에 랭크되는 등 능숙지 않은 슛 감각을 뽐내고 있다.

1999년 프로에 입단한 변연하는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신인왕을 비롯해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챔피언 결정전 MVP, 우수후보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한다. 시즌 기록을 통해 받는 3득점상, 3점아투상, 자유투상 등 여러 개의 트로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시스트상은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이전 시즌까지는 득점을 책임지는 포워드로 뛰었기 때문이다.

변연하는 “경기 중에도 장내 아나운서가 ‘어시스트 1위’라고 코멘트를 해주는 등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준다. 그러다보니 의식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상이기 때문에 탐나기는 한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다소 뚱뚱한’ 존슨… 오리온이 만족하는 이유

팀 바로 적응·잭슨 멘토…헤인즈 대체로 호출



오리온이 다시 한 번 제스퍼 존슨(32·사진)을 긴급 호출했다. 존슨은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5주간 무릎 부상을 당한 애런 헤인즈(34)의 일시대체선수로 오리온에 합류해 9경기를 소화했다.

23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7점을 올리며 팀에 97-69 승리를 안긴 뒤 팬들과 작별인사를 했다. 존슨은 24일 미국으로 떠났고, 부상에서 회복된 헤인즈는 25일 경기부터 출전했다.

그러나 존슨은 집에 도착한지 3일 만인 28일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헤인즈가 25일 복귀전에서 또 다시 발목을 다쳤기 때문이다. 헤인즈는 5주간의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오리온은 헤인즈의 일시대체선수로 존슨을 포함해 몇몇 KBL 경력자들을 물망에 올렸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었다. 터키리그에서 뛰고 있는 리온 윌리엄스(29)는 ‘일시대체로는 오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다.

존슨 재영입은 오리온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존슨은 뚱뚱한 체격이지만, 오리온에서 9경기를 소화하면서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다. 오리온은 주일승 감독은 “지난주까지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팀 패턴이나 전술을 따로 익힐 필요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만은 아니다. 존슨은 조 잭슨(23)에게 멘토 역할을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제스퍼(존슨)가 훈련 때마다 조(잭슨)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 많은 도움을 했다”고 귀띔했다.

29일 재입국한 존슨은 취업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존슨은 내년 1월 28일 동부전까지 헤인즈의 일시대체선수로 뛴다.

정지석 기자 stop@donga.com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리빌딩 새 트렌드…젊은피보다 ‘시스템’

바스켓볼 브레이크

‘리빌딩 선언’ 모비스…양동근 여전히 주축 베테랑 출전 줄이는 기존 방식과 다른 행보 유재학감독 ‘시스템 세운 후 젊은선수 육성’



삼성의 이적으로 전력에 차질이 생긴 까닭에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시간을 부여해 이들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리빌딩(Rebuilding)’은 재건축이라는 의미 그대로 프로스포츠에선 ‘팀을 재건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최근 국내 프로스포츠에서도 하위권 팀들에게 매 시즌 들 수 있는 단어다. 올 시즌을 앞두고 남자프로농구에선 3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모비스가 리빌딩 의지를 드러냈다. 3연패의 주역인 문태영(37), 리카르도 라를리프(26·이상

과는 사투 다르다. 모비스는 올 시즌에도

25승10패로 1위에 올라있다. 또 유재학 감독은 여전히 양동근(34)을 35분 이상 경기에 내보내고 있다. 리빌딩 팀들 대부분은 베테랑들의 출전시간을 줄이기 마련이다.

여기에는 유 감독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어린 선수들을 많이 뛰게 한다고 리빌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선수들에게 그에 맞는 역할과 움직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모비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와중에도 전준범(24), 김수찬(23) 등 젊은 선수들의 발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유 감독은 “(양)동근이가 빠지면 팀의 기본적인 움직임과 시스템이 무너진다. 동근이의 역할을 (김)종근이, (김)수찬이에게 맡겼는데 시스템이 다 흐트러지더라. 5분간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 한 시즌 내내 갈 수도 있다. 아주 위험하다. 그동안 해온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시즌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던 SK는 올 시즌 12승23패로 8위까지 추락했다. 장기간의 연습 없이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SK 문경은 감독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짚고 시스템을 맞춰간다는 생각으로 매 경기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어 “플레이오프 가능성 낮아지면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팀을 운영했다가는 금방 다 망가진다. 지더라도 뭔가 얻어가야 할 것 아닌가.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스템을 강조했다. ‘빠대’ 없이는 팀 재건도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다. 정지석 기자 stop@donga.com



현대건설 양효진(왼쪽 끝)이 2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인삼공사와의 원정경기 도중 상대 블로킹을 놓고 스파이크를 하고 있다.

대전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양효진 통산 ‘800블로킹’…현대건설, 인삼공 잡고 4연승

“지난시즌 배구 회의…이젠 더 재미있게”



‘2015~2016 NH농협 V리그’ 여자부 1위를 질주 중인 현대건설은 3라운드까지 펼쳐 인삼공사를 만나 전부 세트스코어 3-0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2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4라운드 맞대결에

서도 이변은 없었다.

공수에서 압도적 전력을 과시한 현대건설은 국가대표 센터 양효진(26)이 개인통산 800블로킹을 성공한 데 힘입어 인삼공사를 세트스코어 3-0(25-17 25-14 25-11)으로 완파할 수 있었다. 양효진은 4블로킹을 포함해 16득점(공격성공률 50%)으로 클래스가 다름을 입증했다. 현대건설을 4연승(13승3패·승점 38)으로 이끈 양효

진은 “경기에 몰입하다보니 언제 800블로킹을 해냈는지도 몰랐다. 경기 후 팀에서 알려줘서 알았다”며 웃었다. 이어 “V리그 여자부 최초의 기록이라서 뜻 깊다. 블로킹은 해내려는 집중력에 달린 것 같다. 좋았을 때의 감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양효진은 “사실 지난 시즌 잠깐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배구에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

다. 그러나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배구가 더 재미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현대건설의 1위 독주에 대해선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다. 긴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2위 IBK기업은행(승점 28)에 승점 10점을 앞서고 있다.

반면 인삼공사 이성희 감독은 패배 직후 “평가를 할 수 없을 형편없는 경기였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삼공사는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채 2승14패(승점 7)를 기록했다.

대전 | 김명준 기자 galzby@donga.com

‘1.689개 → 2.806개 → 6.015개’…훌쩍 큰 정지석, 수비달인이라 전해라

(최근 3년간 세트 평균 리시브)

■스토리 발리볼

대한항공 입단 3년만에 수직상승 광속석과 최강 리시브 라인 우뚝

V리그 역대 최강의 리시브 라인은 삼성화재 석진욱-여오현 콤비였다. 두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어지간한 상대는 그 포스에 놀라 쉽게 서비스를 낼지 못했다. 리시브를 잘하는 선수는 디그도 잘한다. 배구는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을 먼저 코트에 떨어뜨리지 않는 팀이 이기는 경기다. 그래서 2명의 ‘수비 달인’은 많은 우승을 일궈냈다.

2001년 실업배구 신인드래프트에서 1·2라운드 순번을 가졌던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LG화재가 흥미대 여오현을 3라운드까지 남겨준 것이 ‘삼성화재 왕국’을 만들어준 결정적 계기였다. 당시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여오현이 지명 받지 않고 3라운드로 넘어오자 신영철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여)오현이 잡았다”며 기뻐했다. 신 감독은 “우리 공격이 상



대한항공 정지석이 프로 데뷔 3시즌째를 맞아 기량 광속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 시즌 세트 평균 6.015개의 리시브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스포츠동아IB

대보다 세트당 한 점을 더 낼 수 있지만, 여오현이 오면 실점도 하나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남자부 챔피언 결정전에서 삼성화재가 OK저축은행에 무너진 것은 서브리시브 탓이었다. 삼성화재는 석진욱-여오현의

공백을 실감했다. 이강주(광동혁), 류윤식이 OK저축은행의 강한 서브에 흔들렸다. 리시브가 불안한 삼성화재의 공격은 기초가 흔들리는 구조를 갈았다. 반면 OK저축은행 리베로 정성현은 포스트시즌에 들어서자 ‘인생 경기’를 연속으로 펼치며 우승으로 가는 길을 탄탄히 닦았다. 삼성화재는 ‘서브 폭탄’을 퍼부어 대상으로 리시브 순위 8위 정성현을 선택했지만, 의외로 정성현이 버텨주면서 송희재(리시브 순위 5위)로 타깃을 바꾸는 등 우왕좌왕했다. 리시브에 감정이 있는 송희재는 삼성화재의 목격타 서브를 오버헤드로 잘 받아서 이민규에게 패스했다. 여기서 두 팀의 운명이 갈렸다.

올 시즌 V리그 남자부 리시브 톱5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선두는 대한항공 정지석이다. 세트 평균 6.015개의 리시브를 기록하고 있다. 리시브가 성공률에서 세트 평균으로 바뀐 2008~2009시즌 이후 세트 평균 6개를 넘긴 사상 2번째 선수다. 첫 번째는 2013~2014시즌 대한항공 광속석이다.

그동안 대표팀 단골 원리시버였던 광속석의 보조 역할이었던 정지석은 프로 입단 3년

째를 맞아 기량이 급성장했다. 송림고 졸업반으로 신인드래프트에 나왔을 때를 기억한다면 최근의 광속석은 놀랍다. 당시 삼성화재 신치용 감독은 정지석의 수비력을 보고 내심 지명을 노렸지만, 바로 앞 순번의 대한항공 김종민 감독이 병크 채웠다. 지금도 삼성화재 신치용 단장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가능성이 있어 한 번 키워보고 싶었다”던 김 감독의 바람 이상으로 정지석은 숨겨왔던 기량을 일찍 드러냈다. 최근 3년간의 리시브 기록 변화를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1.689개→2.806개→6.015개로 수직상승했다.

정지석의 성장 덕분에 대한항공은 플레이의 편차가 줄어들었다. 어떤 상대와 붙어도 팀이 가진 최소한의 기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정지석이 안정적으로 서브를 받아 세터 선수에게 올려주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최부식, 광속석과 함께 최강의 리시브 라인을 갖춘 대한항공과 어깨를 겨룰 만한 팀은 송희재, 정성현의 OK저축은행뿐이다. 공격은 관중을 기쁘게 하지만, 수비는 감독이 기쁘게 한다. 누가 공을 잘 받느냐를 보면 시즌의 성패가 보인다. 김충권 전문기자 marco@donga.com